



전남은 풍부한 산림·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전남 만이 가진 맛과 멋, 흥, 따뜻한 고향의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관광지는 물론, 먹거리, 볼거리 모두 갖춘 전남에서 겨울 정취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설을 맞아 해안 드라이브, 관광 명소, 겨울철 별미, 관람·체험을 테마로 한 '설 연휴 전남 여행지'를 추천한다.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 해상교량으로 연결한 '백리섬섬길' 전경.

◇차에서 즐기는 겨울바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함께 겨울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드는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에는 해안도로 곳곳의 전망대에서 서해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 칠산타워에서는 한눈에 펼쳐진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영광의 별미인 굴비정식과 모시떡도 함께 즐기면 특별한 겨울 여행이 될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어우러진 갯벌과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풍광 명소다.

망운면 조금나루 해변에서 시작해 현경면 봉오제까지 10.75km의 해안일주도로는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구간마다 만남의 길, 자연 행복의 길, 노을길, 느리게 걷는 길 등 4개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에서 내려 헤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특히 일몰 시간이 되면 바다 위로 붉게 물든 하늘과 반짝이는 갯벌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한 전남 대표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특히 해질녘 붉은 노을 풍경은 백리섬섬길의 하이라이트다. 낭도대교와 적금대교는 일몰 명소다.

많은 사진 애호가들에게 인기있는 출사지이기도 하다. 차 안에서 겨울바다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안 드라이브·자연경관·별미·전시 명소 등 다채
식도락 만끽...겨울 바다 일몰 명소서 힐링 추천

여수 오동도·향일암, 고흥 나로우주센터·팔영산 자연휴양림 등을 둘러보며 다채로운 겨울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다위 노을 장관 선사

진도 세방낙조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낙조 경관 명소다. 쉬미항에서 진도관광유람선을 이용하면 선상에서 더욱 황홀한 낙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몰 1시간30분 전에 출발해 90분 동안 순항한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육지의 끝이 머리 모양의 바위로 돼 있어 '돌머리'로 불리게 됐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해변 앞 아름답디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주포한옥마을은 한옥 숙소에서 머물며 바다와 함께 해넘이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신안 천사대교는 다도해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질 무렵이면 아름다운 노을이 바다 위에 펼쳐지는 장관을 선사한다. 붉게 물드는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천사대교 인근 식당에서 신선한 제철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미식 여행도 즐길 수 있다.

◇여행의 묘미 '겨울철 별미'

고흥 낙로도 삼치회·구이는 11월부터 2월까지 맛볼 수 있는

겨울철 대표 별미다.

낙로도 인근에서는 당일 잡은 싱싱한 삼치를 맛볼 수 있으며 삼치회, 삼치탕수 등 다양한 삼치요리 뿐만 아니라 장어, 피조개, 굴 등 다양한 자연산 수산물도 풍부하다.

특히 유자주(酒)는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향과 맛을 자랑하는 만큼 고흥에 갔다면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어보길 추천한다.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을 죽청마을에서는 굴구이를 맛볼 수 있다.

굴 채취 기간에만 굴구이 식당들이 문을 연다. 넓은 철판에 굴을 가득 올려 굽기도 하고 장작불에 구워 먹기도 한다. 불향과 바다향을 듬뿍 머금은 굴을 맛보기 위해 겨울마다 장흥을 찾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장흥의 풍부한 제철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토요시장과 일출 명소 소등섬을 둘러보며 겨울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강진 회춘탕은 조선시대부터 해산물과 육고기가 풍부한 강진에서 생겨난 보양음식이다.

가시오가피, 당귀, 헛개나무, 뽕나무 등 한약 재료로 만든 육수와 닭, 문어, 전복을 넣고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먹으면 몸에 오듯 젊어진다고 알려져 '회춘탕'이라 불린다. 몸에 좋은 건강한 재료를 1시간 이상 푹 고아 담백하게 우려낸 국물

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과 맛도 좋다.

◇관람·체험 안성맞춤 전시 다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현대미술관으로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주력으로 수집하고 있다.

현재 전남 출신인 한국의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 작가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 전시물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공룡박물관이 위치한 해남군 우항리는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세계 최초로 발견된 곳이다.

공룡 발자국 화석과 야외 공룡 조형물 등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0여년의 지구 자연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해양 파충류와 공룡 화석 등이 전시돼 있다. 4D 입체 상영관에서는 백악기 시대 공룡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고대 해양생물, 공룡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도슨트 해설로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겨울 제철 신선한 먹거리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이 많은 지역"이라며 "설 명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양시원 기자



설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추억을 쌓으며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테마별 '설 연휴 전남 여행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강진 회춘탕 2 장흥 굴구이 3 신안 천사대교 4 해남 공룡박물관 5 진도 세방낙조

<전남도 제공>